

제4실 악기 | 전시해설

N-102 칠현금

본체 내부에 먹으로 적힌 글로 보아 중국 당나라의 개원(開元) 12년(724)에 금(琴) 재료의 산지로 알려진 지금의 쓰촨성 평저우(彭州)에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는 칠현금(七絃琴) 중의 명품입니다. 오동나무로 제작하여 전체적으로 검은 옷칠을 하였고, 표면에 13개의 나전으로 된 휘(현을 고르는 곳을 나타내는 조각)를 박아 넣었습니다. 옷칠 막 표면에는 가는 선 모양의 우모단과 소용돌이 모양의 매화단 등 단문(가느다란 균열)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단문은 이 물건이 오랜 세월을 거쳐 왔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부터 애호와 감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N-107 채색 그림 북통

기악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북통입니다. 울림통의 테두리와 중앙에 두 줄, 울림통과 울림통 사이를 잇는 조롱목의 가운데 썸에 세 줄을 둘렀습니다. 조롱목에는 여러 장의 연꽃잎 무늬를, 그림의 부분에는 보상화무늬를 각각 운간 채색(동일 계통의 색을 열은 색부터 진한 색 순서로 칠하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채색의 벗겨짐이 심하지만 다른 채색 그림 북통(N-108)과 함께 제작 당시의 화려한 모습을 연상케 하며, 나라시대의 귀중한 작품입니다. 울림통 내부에 적힌 먹으로 쓴 글씨 ‘三 鵬東院’은 이 북이 호류지 도인(東院)의 세번째 북임을 의미하며, 당시 호류지에 이미 ‘도인’이라는 호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105 저

저는 가로로 부는 피리로 횡적(橫笛) 또는 용적(龍笛)이라고도 하며, 통소와 더불어 당악(唐樂)의 연주 악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멍을 7개 내었고, 가구(부는 곳)와 첫번째 구멍 사이를 두 자루의 대나무로 연결하였으며, 구멍을 제외한 표면에는 가바마키(벚나무 껍질을 표면에 감은 것)가 보입니다. 피리의 머리 부분을 밀랍으로 막고 꼬트머리에는 파란 바탕 금란(황금실을 섞어서 짙은 비단의 일종)을 붙였으며 주위에 붉은색 옷칠을 했습니다. 칠현금(N-102) 등과 함께 호류지의 사이인(西院)에 전해졌습니다.

N-103 금주

금주(琴柱)는 금(琴)이나 쟁(箏)의 현을 받치고 음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받침목을 말하며 안족(雁足)이라고도 합니다. 금주는 생김새로 보아 신라금(新羅琴)의 12줄 현을 받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양새는 자락이 넓게 퍼진 산 모양이며 꼭대기에 현을 고이는 홈을 파고 바닥면을 반달모양으로 깎아냈습니다. 표면에는 붉은색 옷을 칠하였고 기리하쿠(금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 풀을 먹인 바탕에 뿌리는 방식) 기법으로 이파리 모양 무늬와 꼭대기 부분의 테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